

## [카드뉴스] 함께해요, 안전운전 5030!



PDF



&lt;1&gt;

### 모든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50km/h 이하로 제한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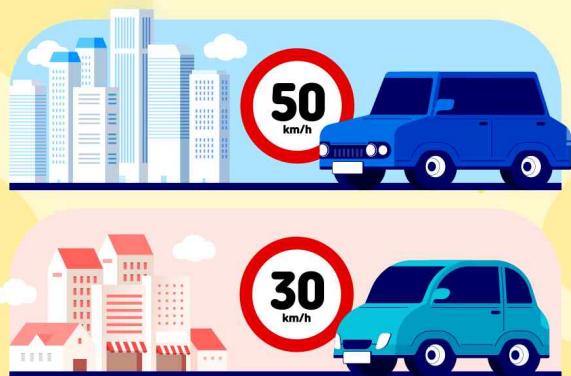
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시속 60km 이하로 제한할 수도 있다.



&lt;3&gt;

### 안전운전 5030이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50km/h, 보호구역 및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하향한 정책으로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lt;2&gt;

###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보행자는 다른 나라보다 교통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있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보행 사망자는 3.5명으로 OECD 평균 1.1명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출처: 경찰청)

안전속도 5030정책은 보행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lt;4&gt;

## 속도를 줄였을 때 교통사고는 얼마나 감소할까?

보행자와 차량 충돌 시 사망 가능성은 시속 60km일 때 85%에서 시속 50km 일 때 55%로 감소하게 된다. 즉 시속 60km에서 10km만 줄여도 사망기능성이 30% 줄어드는 것이다.

속도차이 10km/h당 제동거리는 25%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사고발생율도 낮아진다.



<5>

## 제한속도를 낮췄다고 정체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교차로와 신호등이 반복되는 도심부에서는 주행속도를 줄이더라도 통행시간의 차이는 미미하다. 국내 주요도로에서 차량 주행 실험 결과, 도심부 구간 주행시 시속 50km와 60km인 차량 간의 통행시간은 2분 19초에 그쳤다. (출처: 경찰청)



<6>